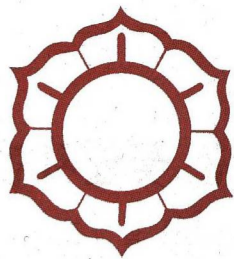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2년

4월 1일

월요일

제33호

이 달의 종조법설

법법은 체가 되고 세간법은 그림자라. 마음
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가 곧
계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마음이 악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이다.

발행인: 해암 편집주간: 원송 편집인: 황익수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종책사업 마무리작업에 최선

전 교도들 협력과 화합의 정신 필요

밀교도량 건설, 복지시설 확충, 불단
장업 및 현대화, 인재육성발굴, 해암통
리원장이 12대 집행부를 구성 후 종단
의 운영 계획의 기초를 발표했다. 그
리고 12대 집행부는 4대 기조에 입각
한 내실을 통한 사업의 추진으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단장업은 밀교적 요소와 전
통적양식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
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통적 양식으
로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극락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단
집과 내부에는 용과 구름 등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하여 장식하고 단청을
수용하여 본존을 장엄화하였다.

또한 신축사원을 밀교적 요소와 현
대적 건축양식을 조화하여 종교적 경
건성과 현대적 편리함을 추구하여 경
제성을 높이는 사원을 신축하려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가장 큰 종책사업은 본산건설
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지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탐색하고 있다.

현재 12대 집행부에서는 호남지역
포교의 전진기지로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사원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현재 본산인 총지사의 불단을 단
집과 단청으로 본존을 화려하고 여여
하게 장엄을 하고 있다. 또한 30여년
만에 법의와 가사를 획기적으로 바꾸
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여 집행부의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2대 집행부의 4대 기조인
인재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프
로그램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암통

리원장님의 취임후 무엇보다도 인재양
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전당건설, 법의 가사, 본산건설등 외형
적 지형만 넓힌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듯이 인재
의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12대 총리원장 취임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취임초 초발심을 잊지
않고 인재양성과 본산건설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집행단의 지원으로 하루속
히 원만 성취되길 기대해 본다.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스승의 위상정립
및 교화활성화를 위한 제59회 춘계강공이 오는 4월
22(월)~25(목)까지 3박4일 동안 총리원 주관으로 총지
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춘계강공은 12대 집행부가 추진하여온 4대 과제인
본산건설, 인재양성, 복지활성화, 도량 장엄을 사업에 대
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춘계 강공에서는 전 승단이 한곳에 모여 교
화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
인다.

22일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개강불사
와 중앙총의회, 24일 승단총회 및 강강식으로 일정을 마친
다. 이번 59회 춘계강공에서는 교화의 혁신과 종조님의 창
종사상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제5차 한중일 한국대회 예비회의

종단협, 4월 9일 월드컵 성공기원대법회 봉행 결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3월27일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
및 부대행사 준비실무회의를 롯데호텔
에서 개최하였다. 불교총지중 해암통리
원장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종
단협 사무총장 홍과스님등 한국측 실
무대표 7인과 중국불교협회 장림 국제
부의장등 2인, 일본불교협회회원 9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차 한중
일 한국대회의 세부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제 5차 한중일
한국대회는 오는 10월28일~30일 2박3일
동안 개최되며 공식명칭은 '제5차 한중
일 불교우호교류대회'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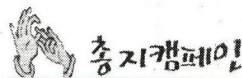
또한 한중일 국제학술 강연회의 주
제는 '인류평화창조와 불법'으로 하고
부제를 '문명간 충돌 극복을 위한 불
교적 해법'으로 정하였다. 기타 실무사
항은 한국측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대회 첫날은 한중일 대회 준비회의
와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회 둘째
날은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환경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평화
합동기원법회와 한중일 국제 학술강연
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5년도
에 중국 북경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제1회 한중일 불교지도자대회 이후 서
울과 일본 경도에서 제2회, 중국북경에
서 제3회 지도자대회가 개최되었으며,
3회의 대회를 통해 3국불교교류 상설
기구인 <한중일불교교류위원회>가 3국
에 각각 설립되었다.

3국의 교류위원회는 1998년도부터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문화, 학술, 수
행, 인적교류와 환경보존, 인류평화등
을 위한 교류 연대사업을 합의하여 추
진해 오고 있다.

또한 종단협의회는 오는 4월9일에
국립극장 대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김
대중 대통령 및 각종단 스님들과 정관
계인사 1,500여명이 모여 2002월드컵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강요되는 아름다움

요즘 광고나 혹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라고 하면 다이어트 그리고 성형
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광고의 형
식이나 내용은 하도 널리 알려져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다. 수술 전 수술 후
혹은 복용 전 복용 후 라는 문구와 사진으로 여성들
에게 성형과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광고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꾸고자하는 욕망은 지극
히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한 것에 관습하여 성형이나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을 광고 하고자 하는 것도 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사춘기시절을 들여다보면 콤플렉스의 대부분이 남자들
이 못생겼다고 놀리거나 여성들끼리의 가치판단,
그리고 대중매체에서의 수많은 미남미녀들의 생산과
보급으로 인해서 자신의 표준을 매체에서 느끼듯 보
여야 자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문제가
있다. 그 예로 전에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여자들이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외모가 변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한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의 자신감은 외모에서 비
롯되고 그 외모를 조장하는 것은 남의 시선 즉 매체
나 자기 주위의 여성이나 남성들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외모를 판단해서도 안되며 판
단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시켜서
도 안된다. 옛날에는 정두렁이 낫다는 이유, 앵을 낫
는다는 이유, 벌의벌 이유로 강요되었던 이데올로기
가 현재에 와서는 아름다움(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
다 힘있게 만들어놓은) 여성만을 추대하고 나머지 대
다수의 여성들을 농락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이데
올로기,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흔들려서
는 안된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외형적
인 이미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으
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형적
인 것이 아닐 것이다.

죽비소리

부처님은 "아무리 많은 물자를
갖다 놓고 예불하고 공을 드린다
고 해도 잠깐 동안 중생을 도와 주는 것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 재물을 차려 놓고 공양하는 것
보다 몇 천만 배나 더 낫다"

또한 "누구든지 나에게 돈 갖다 놓고 명 빌고, 복
빌고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다
고 하면 내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은 다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
을 도와주는 이것이 참으로 불공이요, 이것을 행해야
만 참으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몸으로, 정신
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모두
불공입니다.

불공에서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물이고 할 것
없이 일체중생 모두 다 불공 대상입니다. 일체중생을
돕는 것이 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
고 또 행해야 합니다.

부산불교방송 출력증강 기념법회 개최

울산과 경남지역 부처님법음 청취가능

부산불교방송 출력증강 기념법회가
오는 4월17일 부산 코모도호텔 대연회
장에서 사부대중 3,000여명이 모여 화
려한 법회가 개최된다.

부산불교방송의 방송송신 출력력이 현
재의 3kW에서 5kW로 증강되어 난청으
로 인한 부처님의 법음을 들을 수 없
었던 부산과 경남 사부대중의 오랜 숙
원이 풀리게 되었다.

부산 불교방송의 이번 5kW 증강 송
출로 지금까지 방송이 아예 들리지 않

았던 울산과 경남의 많은 지역에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됐으며 지금까
지 낮은 전파로 청취시 소음이 많았던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의 많은 지
역에서도 보다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부산불교방송의 정밀조사 결과 이번
출력 증강으로 실제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방송허가구역(울산광역시, 양산
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마산시, 진
해시, 통영시, 거제시)의 총세대수

(826,522세대)대비 15.5%, 이 지역 총
인구(3,098,062명) 14.7%에 난청해소가
예상된다. 또 5kW변경후 수신상태 양호
가 예상되는 지역이 총세대수대비
16.3%와 총인구 대비 14.0%에 이른
다고 조사되었다.

그동안 출력 증강을 위해 범여사 통
도사등 전통신사들과 부산 경남 지역 주
민 15,763명의 출력 증강 탄원인 연명
부에 서명운동을 하여 개과를 올렸다.

지난 1995년 2월 개국한 부산불교방
송은 이번 5kW 출력증강으로 제2의 개
국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도약의 기
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번 출력증강
은 부산불교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부
처님 법음을 전하는 BBS 불교방송 전

체, 그리고 불교계의 경사로 보인다.
불교 총지중은 이번 기념법회에 후
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삼일사 주교의
강정사를 비롯하여 부산 경남 교구 스
승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것이다.

1교도 10부 총지중보를 법보시합니다

총지중보는 불교총지중의 신문입
니다. 불교총지중은 실천불교, 생활
불교를 기치로 내걸고 자리아타의 대
승정신을 일상속에서 실천하여 오직
마음의 실상을 찾는 재가불교입니다.
교도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총
지중을 포교하는데 중보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제59회 춘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 그리고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대성사님이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교화와 포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춘계강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산하 전 스승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총기31년 4월 22일(월)~25일(목)
- 장소: 불교총지중 총지사
- 대상: 종단산하 전 스승님
- 주관: 불교총지중 총리원

제59회 강공 주요 일정표

- 22일(월):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 23일(화): 개강불사 및 중앙총의회
- 24일(수): 승단총회 및 종강식
- 25일(목): 관불수련회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해암

사설

각 위원회의 활성화는 종단의 생명력이다

불교 총지종의 종헌에 따르면 종단을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다. 총지종 행정의 전반을 통리하기 위한 통리원을 두고 통리원 산하에 총무부 교정부 재무부 사회부로 나누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종헌 중범의 심의와 중요인사 추천 및 임면과 예결산심의를 담당하는 원의회, 국가의 국회기능을 담당하는 종의회가 있으며 종단의 최고 감찰기관인 사감원과 종단의 외지선교 및 국내사원건축을 목적으로 전당건설위원회등이 있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종의회와 종단의 최고 감찰기관인 사감원의 활동은 종단행정력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종의회와 사감원의 활동은 중요한 위치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력은 극히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감원은 종단의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를 통한 종단행정의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감원장의 공석으로 형식적인 감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도 3부서의 1년 감사를 단시간에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종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17명의 종의회 의원들은 종단 집행부가 추진하고 계획한 일들을 보고 받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종헌 중범의 개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각 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종단의 흥망은 종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조직의 생명력이 담보된다.

또 다시 군화발에 짓밟힌 불교

지난 3월 10일 조계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적인 법당난입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격심한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가, 결국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으려던 조계사사원들은 조계사 경내 곳곳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법당으로 피신한 노승원들을 끌어내려는 명목으로 경찰이 군화발로 법당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휘책임자인 김문선 총로경찰서장의 108참호와 참회문을 발표하는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자신의 경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총로경찰서장의 행동은 그동안 이사회에 대해 발뺌만 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총과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 우리를 씩씩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으려 하는 노승원들에게 시설보호 요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스스로가 경내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던 조계종 총무원총과의 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총과의 요청에 의한 공권력의 투입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관련자에 대한 해명과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불가에서는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잡지 않는 다'라는 불문율이 있듯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으려하는 노승원들을 우리 스스로 내쳤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종교의 성지는 특히 불교는 사회의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힘없는 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했을 때 불교의 사회적 생명력은 영원할 것이다.

단신과 동정

■여익구 불교총지종 역삼재가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지난 2월28일자로 사임을 하고 신임 관장에 조영표 역삼재가노인복지회관 총무부장이 승진 되었다.

■1993년부터 자서사 근무와 2001년 통리원에서 근무를 했던 김병구 교무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 2월12일자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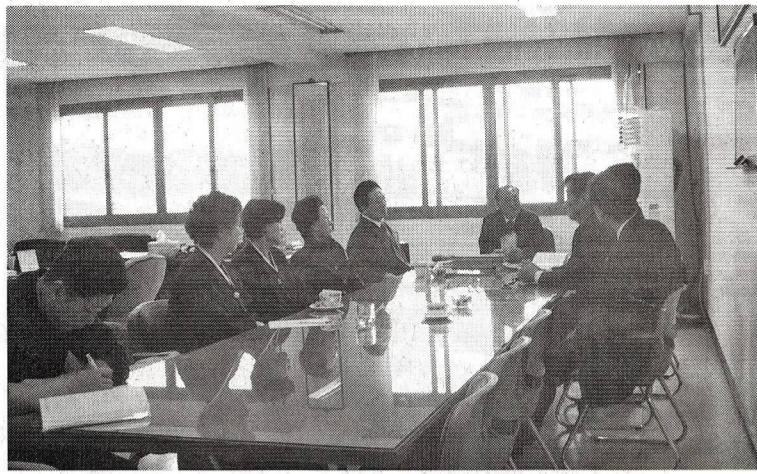
■1999년 통리원 공제 출신인 하경목 교무(사회부 근무)가 의정부 조계종립학교인 광동고 교법사로 직장을 옮겨 2002년 2월18일자 시작 하였다.

■인천 정혜서원당(주교 지정성사)이 서원당의 명칭을 벗고 시법사(施法寺)로 태어났다.

施法寺는 절의 이름대로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펴는 사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전당건설위원회 회의 개최

전주 흥국사, 관련 다양한 방안과 의견개진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에 전당건설위원회가 통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전당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법흥사 사원신축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와 전주 흥국사 사원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되었다.

전주 흥국사 사원 신축은 건설회사의 견적을 받았으나 견적가격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아 전당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 흥국사 사원신축은 직영으로 건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직영으로 건설하면 우선 평당 가격의 단가가 낮아져 사원신축 공사 대금의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과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을 정확히 표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험의 부족과 신축사원의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과중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해암 통리원장은 "광주와 전주의 법흥사와 흥국사를 신축하여 호남 지역의 교세확장에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흥국사 사원신축도 교도와 스승 전 종단이 화합된 모습으로 불사를 하고자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흥국사 사원신축에 대한 원칙은 세워졌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검토중에 있어 이르면일내에 결정이 날것이라 예상된다.

수필

아름다운 행은 꽃잎처럼 향기 있고...

지난해 언제쯤이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탁을 받았다. 어떤 청년에게 일어난 가슴아픈 일이었다. 어느날 이 청년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버스 옆으로 때마침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돌에 부딪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집안사정이 어려웠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몸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 가고 있어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다.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인 한 대학생이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 참으로 어려운 일을 자청하였던 것이다. 사회의 여러곳에 친구의 어려움을 알리고 여러 독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중 나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부탁하였다.

"다음에 꼭 찾아드리겠으니 친구를 좀 도와 주십시오"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의 사정이 궁금하고 딱하기도 하여 가끔 병세를 알아보면 아직도 의식불명이라 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일상의 바쁨이란 이유로 그 청년의 일을 잊고 있던 어느날 낯선 편지 한통을 전해받았다. 편지는 뜻밖에도 의식 불명인 청년을 돕고자하던 학생의

음을 보고 작은 도움을 주었지 돌려받기 위해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보냈다. 세상에는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중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친구를 도우려는 아름다운 행(行)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입 발린 약속이 아닌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 젊은이의 마음을 보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지(加持)있기를 매일 기도해본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해탈되는 지혜와 용기가 만물이 힘차게 소생하는 봄 햇살과 함께 우리를 곁에 따뜻하게 피어나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본다. 지심(至心)으로 법신비로자나 부처님께 비읍니다.

(총지사 주교 법등장사)



지난 3월 13일 불교방송 이사회가 해암 통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4차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불교방송 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고하였다. 또한 종교방송 3사 지방국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불교방송의 현황과 활로를 모색하였다.

인터뷰

황사도 모두 같은 화창한 3월 25일 복지센터에 찾았다. 복지센터에 들어서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따뜻한 미소 속에 열심히 일하는 복지센터 직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게 느껴지며,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걷지도 못하는 분들을 휠체어로 모시고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화장실로 모시고 가 용변 보는 것까지 수발을 드는 모습은 참으로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조영표 관장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과 같이 어른에 대한 효도 의식, 경로사상이 퇴색하고 있는 시대에 중풍으로 인해 신체가 불편한 노인, 치매노인, 가족이 없이 혼자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돌보는 일이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불교총지종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신임 조영표 관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하고 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먼저 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관장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1999년 4월 1일부터 복지센터 부장으로서 근무했으니 이곳 노인 복지센터에서 일한지 정확히 3년째입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또한 한 조직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저를 관장으로 임명해 주신 불교총지종의 중령님, 통리원장님 이하 여러 스승님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 전공이라는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대학 전공은 정치의 교학과였습니다. 정치의 목표는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은 바로 사회복지의 목표입니다.

제가 작년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니 사회복지 역시 정치의 한 영역이었으며, 종교와는 원리상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대학에서의 전공유무도 중요하지만 심성이나 마음가짐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심이었지요. 거창하지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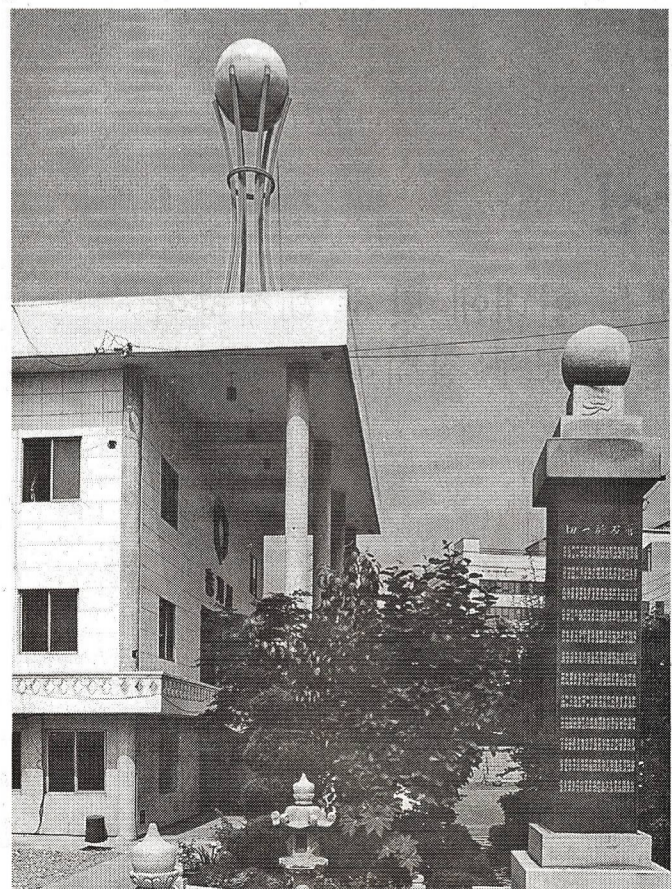
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등장합니다.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각종 퇴행성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중풍이나 치매 노인 수발에 따른 가족들의 문제,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한 경로연금 문제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야기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3면으로 계속)

社 告

대표전화 : (02) 552-1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발행인 : 해암 종사 편집장 : 원송 대정사 안쇄인 : 김준배
 창간 : 총기 24년(1995년) 10월 16일/1995년 8월 29일
 등록번호 : 마-2360호
 종단 홈페이지 불교총지종 : http://www.chongji.or.kr/
 총지사 : http://chongjisa.hihome.com/
 역삼복지센터 : http://yssc.hihome.com/
 총사모 : http://shumisan.hihome.com/
 서울 경인교구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45 (02) 889-0211
 충청 전라교구청 : 광주시 남구 구동 29-18 (062) 676-0744
 대구 경북교구청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43-3 (053) 743-9812
 부산 경남교구청 : 부산시 진구 당감2동 64-5 (051) 896-1578
 종립 동해중학교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25 (051) 555-4457
 금강승지수련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 13 (043) 833-0399
 사회복지재단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 3452-7485
 구독신청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종보편집실(02)552-1083

총지종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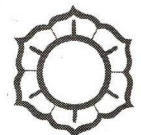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언의 세계로 모십니다.

총령 특정
 통리원장 해암

중앙총의회의 장 의 강
 총무부장 원 송
 재무부장 지 성
 교정부장 법 등
 사회부장 대 원

중앙총의회 부의장 법 공
 서울경인교구장 한수원
 충청전라교구장 범수원
 대구경북교구장 우 송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녹차. 작설. 죽로. 우전. 감로. 세작. 중작...

차를 구입하려 갔다가 생전 들도 보도 못한 것을 접원이 소개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는지 필자와 같은 문의 안은 없어야 하겠기에 조금 아는 것이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차는 예로부터 삼국시대의 고려를 지나 조선대에 까지 거래되는 물품중 귀한 물품이었고 임금님에게 진상되는 품목 중의 하나였다.

특히, 스님들이 차 마시기를 즐겨했으며 차 생산을 직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긴 시간속에 있던 차와 차 문화가 지금은 접하기 힘든 것으로 변해버렸다.

그 원인으로 조선대에 와서 차 생산을 장려하지는 않고 진상품으로 남품만을 강요하다보니 차 생산자들이 생산을 포기하였으며 송유 역불정책에 따른 스님들의 차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원인은 있으나 무엇보다 필자가 보기에 차 문화가 일반 서민들에게 까지 널리 애용되지 못하고 양반대들이 즐기는 호사품정도의 문화에서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한국의 토종 차나무는 씨앗으로만 번식한다. 최근 성으로 뿌리가 곧게 내리뻗기 때문에 옮겨 심으면 죽는다. 그래서 옛날 풍습에 여자가 시집갈 때 정절의 상징으로 차씨를 혼수 속에 담아가기도 했다. 차나무 씨를 뿌리고 대개 7년생에서부터 차맛을 수확할 수 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3개월쯤 지나면 새순이 돋아난다. 차는 이른 봄에 새로 돋아나는 것을 따 모아 가공한다. 차나무는 꽃과 열매를 함께 맺는 특성이 있어 실화상봉수라고 한다. 10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1월 중순까지도 꽃을 볼 수 있다.

재래식 차 가공법은 뜨겁게 달군 가마솥에 차를 뒤은 다음 손으로 비비고 또 뒤고 비비고 하기를 세 번에서 다섯 번쯤 반복하여 건조시킨다.

현대에는 재래식을 자동화하여 가공하고 있으며 차나무에서 탄 차 잎을 발효를 막기 위해 가장 짧은 시간에 가공을 완료해야 상품의 차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공한 차 잎을 더운물에 불리면 차 잎이 원래대로 퍼진다. 이때 차맛이 많이 잘려 있으면 그것은 기계로 채다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차라고 할 수 없다. 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좋은 차이다.

차는 채다 시기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난다. 곡우 전후에 판 것을 세작細雀이라 하는데 최상품으로 친다. 세작은 차물의 온도를 5-60도 쯤으로 하여 우려내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입하 전후에 판 것을 중작中雀이라 하는데 물의 온도를 6-70도 사이에 맞추면 좋다.

완전히 발효시킨 차로 동양에서는 우린 빗갈이 붉어서 홍차라 하고 서양에서는 차맛이 곱다고 하여 블랙 티라고 부른다.

차 마시는 기구를 다기라 한다.

다기의 기본 세트는 찻주전자와 귀때그릇(숙우), 찻잔 다섯 개인데 이것은 음양오행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차항아리, 개수그릇, 물항아리, 화로 등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차 생활에 필요한 다구를 스물 여덟 가지로 정했다. 그리고 다구는 신성한 기물이라 하여 다람을 만들어 따로 보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차 생활에서 이 스물여덟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현대적인 차 도구들이 옛날 것보다 편리하고 다

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을 보면

1. 다구와 뜨거운 물을 준비한다. 2. 귀때그릇(숙우)에 물을 담는다. 3. 찻주전자의 뚜껑을 열어 뚜껑받침 위에 올려놓는다. 4. 예열을 주기 위해 귀때그릇의 물을 찻주전자에 붓는다. 5. 찻주전자의 물을 찻잔에 붓는다. 역시 예열을 주기 위해서이다. 6. 귀때그릇에 다시 물을 받아서 식힌다. 7. 찻주전자에 차를 넣는다. 8. 적당히 식은 귀때그릇의 물을 찻주전자에 붓고 우린다. 9. 예열을 위해 찻잔에 부어 놓았던 물을 개수그릇에 붓는다. 10. 차가 잘 우려났다고 생각되면 찻잔에 따른다. 11. 찻잔을 받침 위에 얹어서 낸다. 이때 소나무 꽃에서 얻은 꽃가루를 넣어 특이한 맛이 나는 송화다식이나 미숫가루로 만든 미말다식, 검정깨다식으로 흑임자다식, 한과 등을 함께 내놓으면 금상 차미일터.

감로, 우전, 죽로에 관한 것은 다음 지면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산 정양용은 “차를 즐겨 마시는 민족은 흥할것이고 술을 즐기는 민족은忘할것이다” 말했다

불교 에세이

길들여 짐에 대하여

생 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니?”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던 일이야.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물론이지. 내가 있어서 너는 아직 몇 천, 몇 만 명의 어린이들과 조금도 다른 새내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아. 그러나 네게는 나라는 것이 몇 천, 몇 만 마리와 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지.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나에게도 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또한 네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얼마 전부터 서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너머로만 배우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했는데 제대로 한 번 배워볼 양으로 붓을 잡았습나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며 마음에 새기기는 하지만 붓을 잡는 법부터 글씨를 쓰는 법까지 지극한 이전의 버릇이 나오곤 합니다.

버릇이 된다는 것, 그것은 길들여진다는 것이고, 익숙해진다는 것이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고, 굳어져 관성이 붙었다는 것일 겁니다.

소위 골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담배 없는 살아가는 의욕이 없다고 하고, 김치에 익숙한 사람은 반찬 중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고, 수다쟁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활동적으로 일하던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하면 쫓겨 쫓겨 안절부절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훈습이 된 것일겁니다.

원래 ‘나’란 없으니까 ‘나의 것’, ‘나의 버릇’도 없었겠죠. 그러나 점점 ‘나’라는 의식을 형성해 가고,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나의 버릇’도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게 되고 그것을 배제하고서는 ‘나’를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행운일 수도, 또 엄청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길들여지는 것은 마치 향

산 종이에서 향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을 부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 나쁜 행위에 길들여진다면 고기를 썩은

이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화를 부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버릇과 사귀면서 선업을 쌓는 일에 힘을 일입니다.

조그마한 선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조그마한 악이라 하여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미소가 한 사회를 밝게 만들고,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행위 하나 하나가 복을 부르는 일로, 혹은 화를 부르는 일로 자각도 없이 길들여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심코 짓는 행위에 나를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 없었나 돌아볼 일입니다

(양동호 법사)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그에 따른 결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현대판 고령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중풍·치매·노인 수발문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이 사망한지 1~2개월 후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제도적 정비, 예산의 배정, 유능한 인력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담당자의 실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의 목표는 간단히 말하면 “자지만 우수한 복지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수한 복지센터”는 첫째,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보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사회내 유용한 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3층 공간을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문제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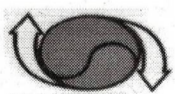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종단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항상 뜨거운 자비심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고 계신 불교충지종 종령님, 통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복지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햇살도 따듯하고 마음 역시 뿌듯했다. 관장님의 의식과 태도가 분명하니 직원들 역시 그렇게 정성껏 친절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불교충지종 복지사업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폐기물의 자원화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명입니다.

생활의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기물 — 이 폐기물 중에는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처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 재생업체 육성자금 지원,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 등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관한 모든 궁금증 —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찾으십시오.



지상설법

복(福)에 대하여 (1)



(만보사 주교 법공 정사)

싫어하면서도 죄 짓는 이는 너무 많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복(福)의 쓰임

복이란 형상이 없으면서도 그 작용과 쓰임새는 무궁무진하여 종류도 많거나와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데가 없고(無所不用) 그 이(利)로움이 실로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예로-병법(兵法)에-용기있고 힘센 장수라도 전략(戰略)에 능한 지혜있는 장수(將帥)만 못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도 덕(德)높은 장수만은 못하고 비록 덕망(유덕-有德)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복(福)까지 겸한 장수만 못하다 함.

2. 복(福)의 종류

복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복, 동기복, 처복(남편복), 지식복, 재물복(돈), 관복(官福-벼슬, 지위), 문복(文福-문장, 글재주, 명문대학), 인복(人福-도움주는 사람)과, 소위 세간에 서 말하는 (오복(五福)): ① 수복(壽福-오래 사는 것) ② 부귀(富貴-재물과 명예가 넉넉한 것) ③ 강녕(康寧-건강하게 사

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작자수(自作自受)라 하였으니-반드시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지 결코 빌(구걸-(求乞)거나 빌리(차용-(借用)거나 훔치거나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복은 자기가 지어 자기만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남이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없고 내가 쓰지 않는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있다가 물이 필요하게 되어서야 부랴부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사람보다, 비록 지금은 당장 물이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평소에 미리 우물을 파 놓은 사람은 필요할 때 곧바로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나 뿐 아니라 남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 더욱 좋고 또한 자신 대대로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우물이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수원(水源)이 깊은 좋은 우물을 미리 파는 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② 큰 복전(福田)을 지어야 한다.

복 짓는 것이 마치 농사 짓는 이치와 같아서 어떤곳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수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옥토(沃土-기름진 땅)와 박토(薄土-거친땅)에 심은 것과 씨앗의 품종에 따라 수확이 크게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理致)입니다. 불경(佛經)에 보면 큰 복밭이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팔복전(八福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좋은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급수공덕(給水功德))
 2.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강(江)이나 하천(河川)에 다리를 놓아 편하게 건너 다니게 해주는 것(월천공덕(越川功德))
 3. 험한 길을 잘 닦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해 주는 것(치평험로(治平險路))
 4. 부모에게 효도르 다 하는 것(효순부모(孝順父母))
 5.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공양삼보(供養三寶))
 6. 병든 이를 돌봐주고 간호해 주는 것(간호병인(看護病人))
 7. 가난한 사람을 널리 구제해 주는 것(구제빈궁(救濟貧窮))
 8. 법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법음(法音)을 듣게 해 주는 것(설무차대회(說無遮大會))
- 이상 여덟가지 큰 복이 되는 복밭(福田)을 보면 하나같이 나 자신이나 내 가

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을 볼 때 원리는-자기만을 위한 자리(自利)보다 남을 위한 이타행(利他行)이 더 큰 복전이 되며, 따라서 남을 위하더라도 소수(小數)보다는 다수(多數)를 위해-배품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복전(福田)이 되는 것입니다.

③ 복(福)의 왕래득실(往來得失-오고 가며 얻고 잃음)

복의 본성(本性)은 묘(妙)한것이라 주면 반드시 받게 되고 가면 오게되며 또 한알을 심어 백천을 얻는 씨앗(종자-種子)과 같은 것이라. 적게 심으면 적게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얻으며 짧게 심으면 쉽게 끝나며 오래 지으면 장구(長久)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얻기 바쁘게 금방 잃어버리며 (48시간짜리 장관) 또 어렵게 얻어서 쉽게 끝나버리기도 하며 쉽게 얻어서 오래 누리는 사람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복의 원리도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

리로서 한치의 오차(誤差)없이 지은만큼 받게되고 쓴만큼 줄게(감소-減少)되는 것입니다.

④ 복(福)을 오래도록 받는 법
첫째-복(福)을 아껴 써야 한다. 지금 아무리 다복(多福)하고 만복 하더라도 함부로 헤풀(濫用)쓰게 되면 쉽게 고갈(枯竭)되어 바닥이 나타나, 적은 복이든 많은 복이든 항상 아껴쓰기를 유념해야 합니다.(예-예금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입금액 보다 출금액이 많으면 잔고가 바닥나 듯)

둘째-복을 쓰되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널리 나눠 써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기심(利己心)과 간탐심이 굳어져서 남과 나눠 쓰기를 싫어하고 남으면 버릴지언정 남주기를 싫어하니, 반드시 나눠 쓰기를 힘써야 합니다.(예-나의 재물 남을 주면 주는 그때 줄었지만 도로 불어 돌아옴은 우주자연 법칙이요 -종조 법어)

(다음호에 계속)

서언(序言)

근자(近者) 교계일각에서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명제(命題)를 놓고 찬반(贊反)양론(兩論)이 뜨겁게 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대대로 복(福)에 대하여 다양(多樣)한 형태의 믿음과 바람(소망(所望))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도 여러곳에 복(福)에 대한 언급(言及)이 많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時點)에서 우리는 불자로서 복(福)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이 평소 생각해 왔던 복(福)에 대한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福)에 대하여 말을 쉽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복이 좋은 것 인줄은 알면서도 막상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복 받기를 바라고 복 많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떤것이며 어디서 오고 왜 없는지? 다복(多福)하고 박복(薄福)한 그 근원(根源)에 대하여는 무지할 정도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복 받기를 다 좋아 하면서도 복 짓는 이는 드물고 죄 받기는

복은 自作自受다 구걸하거나 차용하는게 아님

는 것) ④유호덕(攸好德-복덕짓기를 좋아함) ⑤고종명(考終命-명대로 잘 살다가 편히 죽는것)등 실로 그 종류도 다양(多樣)하다 하였습니다.

3. 복(福)은 어떻게 받는가?

복의 근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마치 재수 좋은 사람이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듯, 길거리에서 돈지갑 줍듯, 복권 당첨되듯, 재수가 좋아 생기거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떡 나눠주시듯 나눠주어 받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이란 결코 우연한 재수거나 거저 생

겨져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사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집(빈부귀천에 관계없이)에 태어나든지 자기 복(福)으로 살게 됩니다.(예컨대-미혼모(未婚母)의 소생이나 빈천(貧賤)한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귀한 가정에 입양(入養)되어 일생을 부귀(富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4. 어떻게 지어야 하나?

① 평소에도 지어 두어야 한다. 가령-물이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하여

어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삼계(三界)

중생이 생사(生死)에 유전(流轉)하는 미혹(迷惑)의 세계를 셋으로 나눈 것이다. 곧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셋을 말한다. 욕계는 식욕(食欲)·성욕(性欲)·수면욕(睡眠欲) 등의 욕망이 있는 세계이다. 색계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나 주관의 감정을 떠나 대상을 색(물질적 존재)으로만 순수하게 인식하는 세계이다. 무색계는 색계까지 초월하여 순수하게 정신적인 세계이다. 이러

한 삼계는 중생의 정신적 경계를 셋으로 나눈 것인데, 욕계는 산동(散動)하는 마음의 산심지(散心地)이며,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들어가서 마음이 산동하지 않는 정심지(定心地)이다. 그러나 삼계도 모두 두 중생의 업력(業力)에 따라 생사윤회(生死輪廻)하게 되는 고탈(苦海)이다. 불교의 해탈(解脫)은 바로 이러한 삼계로부터의 초월의 경지이며, 대자유(大自由)의 세계이다.

해탈이란 삼계의 초월

생활속의 밀교

내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노부부가 불어빵과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정해 보이고 서로를 무척 아끼는 모습이였다. 날씨가 차가우면 영감마처에 비닐을 두번 세번 두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큰 돌을 짓눌러 놓으신다. 마나님을 위해 잠시도 기간있지를 않는다. 그런 영감이 마나님을 무척 고마운지 금방 꺼낸 불어빵 하나를 건네 드린다. 영감님은 반을 잘라 마나님 입에 넣어준다. 참으로 행복한 노부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장사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는 전혀 고단함

포장마차에서 뭐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모님의 설명에 나는 짧았던 나의 생각과 편견에서 비롯된 나의 작심(作心)이 참으로 부끄럽고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여자들은 우리 집 애들이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님 사모님이다. "아빠님,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굳이 고집을 부리시며, '놀면 뭐하나. 소일거리로 있어야 한다. 일을 해야 젊어지는 거지.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아이에 우리는 포장마차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게다. 다만, 우리 때문에 너희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모르겠다

그릇됨은 편견과 분별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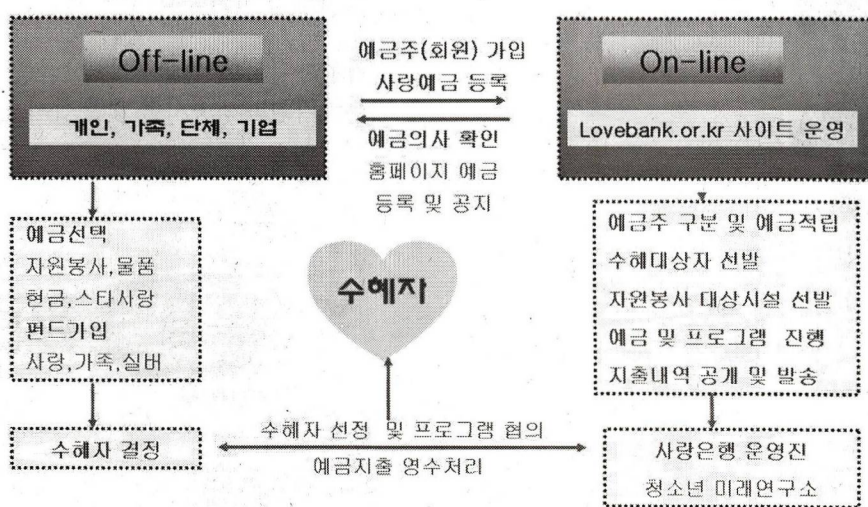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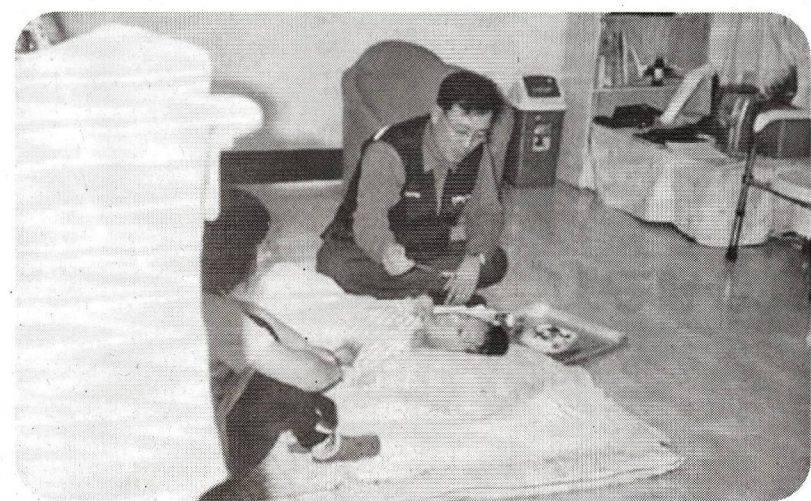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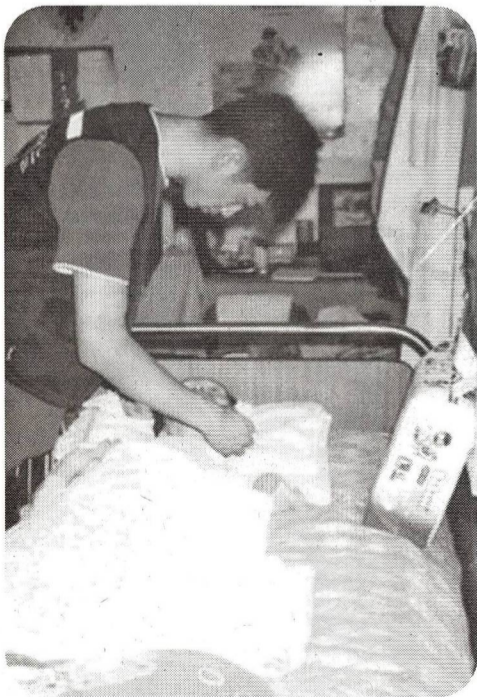
이런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분들은 자식도 없나보다. 돌보아 드리는 자식이 없으니 저렇게 생계를 꾸려 가시는가보다. 말년에 참 안되였다. 그러나 다행히 두분께서 저렇게 서로를 아끼고 위하면서 불어빵을 파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한 구석에는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휴일날, 포장마차 앞에는 낮 익은 여자 한 분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일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노부부가 인종에도 없었고 그 여자분에게 인사를 건네며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아니, 관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여기는 웬일입니까?"

만, 동네사람들이 늙은 노인들을 포장마차 일을 하게 한다고 입방아를 찧더라도, 내가 관장님 너희가 관장님만 될 부끄러워할 일이겠냐 하시며 불어빵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하였다. 사모님의 자초지종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들킨 꼴이라고나 할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난뒤 나는 노부부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부그러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부부의 얼굴에는 흐트란 웃음이 스며들었다. 그전까지 측은하게만 여겨졌던 노부부는 내게 달리 보였던 것이다. 객체에 대한 오오(五蘊)의 그릇됨이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오오(五蘊)의 그릇됨과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나를 두고 '대일경'은 이렇게 설하고 있다. "진언구제자(眞言救世者)는 일체의 분별과 무분별을 떠나서 무진중생계의 모든 거래(去來)와 모든 소작(所作)에 의혹을 일으키지 않는다."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총지논단

다양성의 시대, 불교운동의 성찰과 전망

불교운동 전문영역확대와 전문인력양성 필요



서동석
(불교총지총사회복지
재단 사무국장)

불교의 민중화를 위해 사회참여를 하게된 동기는 80년의 10.27법난을 꼽을 수 있다. 그만큼 80년의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절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민중불교운동의 근거를 초기 불교가 담고 있는 실천적 정신에서 찾고자 하였다.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해방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청년불자상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81년 '여래사운동' '민중불교운동연합' '민중자주통일불교협회' '정토승가회' '대승불교승가회' 등으로 조직적 분화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의 사회운동은 90년대 이후 확실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80년대처럼 총체성을 띤 운동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탓에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법률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의 후생과 복지에 관한 방법에서는 좋은 활동과 경험을

민중불교운동의 성과 계승 발전과 전문인력과 이념 확립 필요

의 축적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활동 즉 후진국의 기아에 대한 구호활동이라든지 북한 및 조선족 동포를 후원하는 활동들은 90년대가 낳은 불교운동의 또다른 모습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보호운동으로까지 불교의 사회운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념의 확립이 과제인데 이것이 해결된다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더없이 제고될 것이다.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과거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과의 계승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적 불교운동을 위해 진지한 논의와 실천을 담보하여 과거 선배들이 보인 열정에 뒤지지 않은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활기찬 생명력은 더욱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운동의 페러다임의 전환



윤형근
(한살림살임연구원)

과거의 운동은 철저하게 적과 나를 구분했고 운동의 주체와 대상을 가르는 대상화의 문제, 물리학적 운동의 한계를 띠게 된다. 시민운동의 형태를 띤 운동은 권리회복 운동, 테크노크라트들의 기술적 합리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내세워 근대적인 자율적 개인의 형성과 근대적 계약사회, 공정한 규칙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를 형성하여 비제도적 정치영역을 구축한다.

시민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민주적 개혁과 민주적 운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운동을 강화하여 중앙집중화된 사회를 분권화, 민주화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자율적 자치적 시민층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적, 자치적 시민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시민 참여도가 낮고 그로 인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슈/이벤트 중심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명운동은 기존의 사회체계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수정

나눔으로 공동체적 삶 구현, 불교적 연기적관 확립

하고자 한다. 생명운동의 문제의식은 시민운동과 다르다. 생명의 그물로서의 세계, 즉 인간과 자연 우주의 유기적 연관이라는 생태적 사유와 동시에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인간의 몸과 이성, 감성을 포함한 전인적 개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문명전환의 주체로 부각시킨다. 나눔과 협동을 통한 '살림'을 실천의 지침으로 삼아 협동과 공유와 나눔 그리고 자연과의 호혜적 연관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다. 생명운동은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모색,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회복, 내지는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회복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운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기획, 주요성이 삼재론을 빌어 제기하는 영성·문화운동, 환경·생태운동, 자치·상생제 운동을 통한 영적인 삶(天), 생태적 삶(地), 사회적 삶(人)의 통합적 전망을 통해 문명의 전환을 기획한다.

수행과 불교사회운동의 일치 필요



조연현
(한겨레신문
문화부기자)

부처님은 출가뒤 진리를 깨달아 중생이 집착을 놓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사성제), 우리 모두가 '너'가 아닌 '내가' 존재할 수 없는 한 생명임을 깨달아(연기법)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체대비심을 일깨웠다.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하는것도 그런 깨달음에 이르고, 그런 삶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운동은 활을 떠난 삶과 같이 관성에 의해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매순간 살피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 혼동될 만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평화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 폭력적이 될 수 있고 환경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는 반 생명적일 수도 있다.

실사 운동의 성과가 더디더라도 불교운동의 에너지원은 분노가 아니라 동체대비심의 에너지여야 한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제바닷다가 부처님이 교단을 물려주지 않자 성난 코끼리를 의지에서 부처님을 향해 내몰때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도, 99명을 죽인 살인마 앙굴리마가 칼을 들고 달려들때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지만 부처님은 이때조차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탐, 진, 치 삼독심이 녹지 않으면 쉽게 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내외의 압력과 폭력을 감당할 인력과 붓다의 길을 따르겠다는 서원없이 따르기 어렵지만, 그것이 붓다의 운동방식이며, 붓다를 따르는 수행자의 운동방식이여야 할 것이다. 불교적 깨달음의 궁극은 평등지이다. '나', '내 지역', '내 편', '내 종교'의 아집에서 벗어나 일체에 대해 평등하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게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대승불교의 가치관인 보살의 길은 참으로 아름답다.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자무량심, 모든 중생의 고통을 벗겨주려는 비무량심,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려는 희무량심, 차별심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이야말로 불교 활동가들은 가져야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대승보살의 마음을 잊지 않고 활동하는 불교활동가가 되야 할 것이다.

“ 한국불교 역사의 흐름과 함께해온 불교사회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대안으로서의 불교운동이 자기비전을 제시하고자 불교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샵이 지난 3월22~23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부련, 불교환경교육원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다양성의 시대, 불교운동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대가능성과 그 전망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총지총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서동석, 한살림살임연구원 윤형근, 한겨레신문 문화부기자 조연현씨의 발제문을 실는다. (편집자 주) ”

정보 다이제스트

- ◆ 연령은 숫자에 불과하다 ◆
 - △30대=담배를 피운다면 끊어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7년 더 일찍 죽는다. 할암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라. 운동을 하라.
 - △40대=체중과 허리를 유심히 관찰하라.
 - △50대=체지방은 10년마다 약 5~10% 증가하는 반면 체세포는 감소한다. 몸 구성요소의 이런 변화는 질병감염, 수명, 신체기능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60대=이름 잊기 등 기억력 감퇴가 보편적이다. 단어맞추기와 같은 정신 운동은 인지력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 유체적 활동도 좋다.
 - △70대=가능한 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 녹차·봄나물로 '춘곤증 비켜' ◆
 - △건강차·식품=점식식사 후 커피 대신 씹살한 맛의 녹차 한 잔은 춘곤증 해소에 좋다. 녹차는 비타민 B·C 등이 많아 피로회복은 물론 체내 독소물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또 모과차·당귀차·생강차·계피차 등이 효과가 있다. 또 구기자차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대추와 생강차는 불면증 해소에 적합하다.

- △봄나물=봄나물은 감칠맛 나는 냄새로 입맛을 돋우며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감을 씻어준다. 가장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다. 독특한 향기가 나는 달래는 정력증진에 좋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증기 등의 한약 재료 쓰일 정도로 몸에 좋은 나물이다. 두릅은 당뇨병에 좋고, 들나물은 피를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철분 부족하면 운동해도 효과없다 ◆
 - 철분이 부족한 여성은 운동을 해도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코넬대학의 지어 하스 박사는 25일 영양학 전문지 '임상영양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철분이 조금이라도 결핍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여성분은 남성보다 철분결핍으로 인한 빈혈 위험이 약 두 배 높다. 특히 폐경이전의 여성은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철분결핍이 심하면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모자라는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손상되면 운동은 물론 걷는대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일상적인 신체활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스 박사는 말했다. 영양전문가들은 철분이 모자라는 사람은 철분보충제나 종합비타민을 택하기 앞서 식사메뉴를 조정해 적색육과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같은 푸른잎 야채 그리고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다.

총지 동의 보감 음주전 "숙취(宿醉)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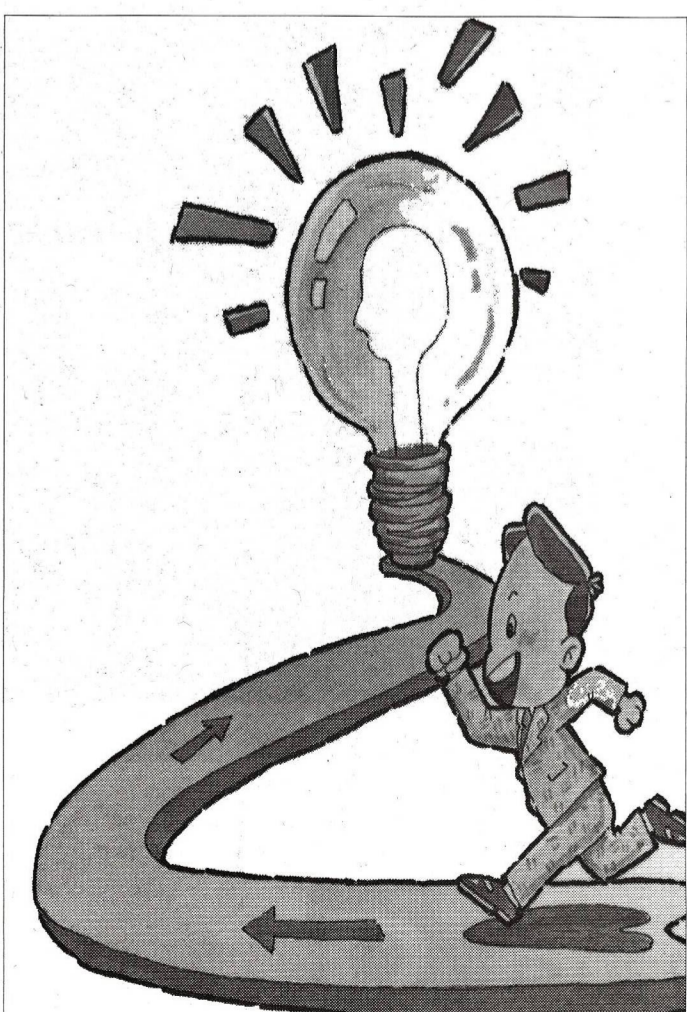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술은 음식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음식과는 달리 뇌(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성이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과음을 삼가하고, 음식과 안주를 적절히 곁들여 천천히 즐겁게 술과 대화를 즐기며, 과음 후에는 적어도 2~3일은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다.

음주로 섭취된 alcohol(에틸알코올, 에탄올 : C₂H₅OH, ethyl alcohol, ethanol)은 위장막을 통하여 20~30%가 흡수되고, 남은 술은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여 거의 대부분 흡수된다. alcohol은 마신지 5분내에 혈액에서 발견되며 간에서 90%가 대사된다. 나머지 5%이하만이 화학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소변과 호흡으로 배설된다.

혈장을 통하여 간으로 운반된 alcohol은 알코올탈수소효소(ADH isozyme, 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하여 acetaldehyde로 산화된다(acetaldehyde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해를 입히고, 숙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간(肝)은 알데하이드탈수소효소(ALDH)란 효소를 만들어 acetaldehyde라는 독성

물질을 대사시키거나, 다른 조직으로 운반하여 유리 acetate의 단계를 거쳐 acetyl coenzyme A로 되며, 이 때 acetate부분은 CO₂와 H₂O로 완전히 산화된다.

따라서 alcohol의 대사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 췌장, 소장 등의 소화기계 이상이 있으면 음주를 금하거나 절제할 것이며, 위중한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심한 간경변증으로 여러 합병증이 있는 경우, C형 만성 간염이 있다면 소량의 alcohol이라도 절대 금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취예방법일 것이며, 간이 alcohol대사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므로 에너지원인 포도당 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든든히 식사를 한 후 또는 충분한 안주(음식)와 같이 천천히 음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유나 지방은 alcohol의 흡수를 방해한다.(안주를 먹는 것 자체가 간을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강한 alcohol이 위장막을 손상시켜 위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복시에 비하여 알코올을 3배 정도 천천히 흡수하게 된다. 또한 음주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영양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럴 수가 없겠지만...

전기를 아깝다고 플러그에 지물통을 채울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족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플러그에는
언제나 마음에 걸린 지물통을 채워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물통 가족

슬그머니 새어나가는 전기
이제는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함께 읽는 佛書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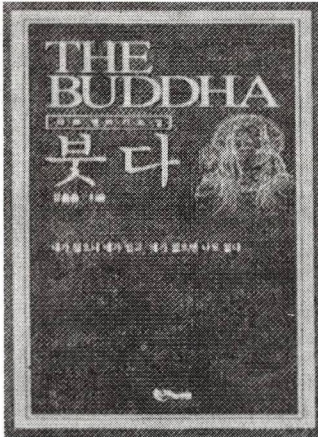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가?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공평하지 못한 세상과 적에 대한 분노는?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를러가 달라이 라마와 벌인 끈질긴 대화에서 던진 질문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21세기 최고의 지성이 쓴 삶의 지침서이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불교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의 지성을 일깨우고 마음을 열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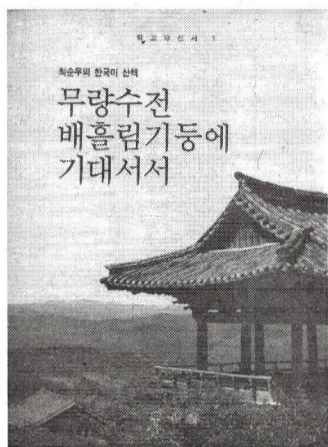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하워드 커를러 공저 / 류시화 옮김 9,500원



이책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인이 아닌 소설가의 입장에서 종교라는 틀에 얽매이지나 치우치지 않고 부처님의 생애와 깨달음의 과정을 생생하게 논픽션으로 재현시켰다. 저자는 이책을 통해 △모든 경전은 붓다의 설법에서 나왔고, △모든 설법은 붓다의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이며, △그 깨달음에 우리는 어떻게 쉽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초보자의 편안한 '불교 읽기'를 시도했다.

4x6판 변형 / 양장 / 15,000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무리 배어난 예술작품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한낱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가려내는 안목이야 한번에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식견을 슬쩍 빌릴 수는 있지 않을까.

'최순우의 한국미 산책'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일러준다. 책의 제목이 된 부석사 무량수전 등 건축물을 비롯해서 불상, 금속공예, 백자, 회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별 우리 문화유산 대표작들을 도판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도 있지만 장독대나 온돌방 장판 등 서민의 생활과 함께 해온 일상적인 것들도 포함돼 있다. 아름다움을 집어내는 저자의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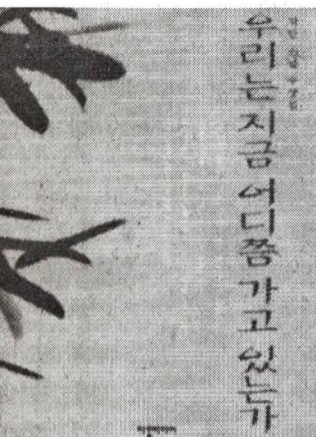
최근 쏟아지는 문화재, 미술품 해설서 대부분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전문적 내용이나 철학적 의미, 혹은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를 담아 흥미를 끌고 있다면 이 책의 매력은 전문가의 해인이 녹아있는 수려한 문체에 있다.

최순우는 국내 첫 미술사학자인 고유섭 전 개성박물관장의 제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년동안 박물관에서만 공직생활을 해온 '박물관인' 이 쓴 책이니 만큼 읽는 이 입장에서는 선택의 잣대만 쟁겨도 실속은 차리는 셈인데, 여기에도 문화성까지 갖춰져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물론 매쪽마다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나 역사 등 정보도 빠지지 않는다.

문화재는 대개 이름부터 어려운 한자로 돼 있어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무뚝뚝한 돌들' '무량수전은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등 신선한 우리말 표현을 써 한국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최순우 저 / 학교재 / 15,000원

우리는 지금 어디쯤 ...



모든 것은 옮겨 가는 도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면 인생은 분명 순례의 길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양산 통도사 반야암 암주도 사하면서 영천 은해사 승가대학장직을 맡고 있는

지안스님이 편낸 첫 수상집이다. 수행생활을 하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여 제1장 '중노릇 잘해라' 제2장 '생활 속에서 깨달음' 제3장 '속세를 바라보니' 제4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5장 '법문한마디' 총5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장에서 30여년전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중노릇 잘해라"라고 당부하시던 은사인 벽안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원의 생활을 다잡고 있으며 제2장과 3장에서는 산사와 도심에 오가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또 생활속에서 맞닥뜨렸던 갖가지 문제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았다.

다할미디어 / 9,000원

붓다

다큐멘터리 소설 '붓다'에는 붓다가 중생들에게 쉬운 비유를 들어 설법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는 이들을 위해 붓다가 득도 과정에서 겪은 고행과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에게 설법했던 내용, 승단 생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소설처럼

쉽 읽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카톨릭 신자이면서 소설(불의회상) <명성황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유홍준씨가 오랫동안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속에서 붓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7화- 글:크림/정수인

고고고... 아아... 드디어 닭이 되었다.

관자재 보살 행상 반야바라 밀다시...

응? 어디서 많이 들던 소린데..

조건 오온 개공... 어? 너는 어디서 많이 보던 닭인데.. 금방 하시던 경의 내용이 어떤건가요? 허허.. 기록한 닭이로고.

대성사님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행은 행할(行)이며 심은 깊을(深)이고 시는 때(時)이니,

"관자재 보살행상 반야바라 밀다시"를 풀이 하자면

"관자재 보살님께서 깊고 지극한 바라밀다를 행할적에~"라는 뜻이다.

근데 조건이라는 말의 뜻은 혹시 닭모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조건이라는 말은 비출조(照), 불견(見)이니 비추어 본다, 꿰뚫어 본다 라는 뜻이란다.

닭모이가 아니라 서운하겠나?

공!

모이는 관심 붙아임.

그리고 오온개공이라는 말은 다섯가지 요소가 다 공이라는 말이란다.

2002년 월드컵

허허허... "공"은 그런공이 아니야.

요약 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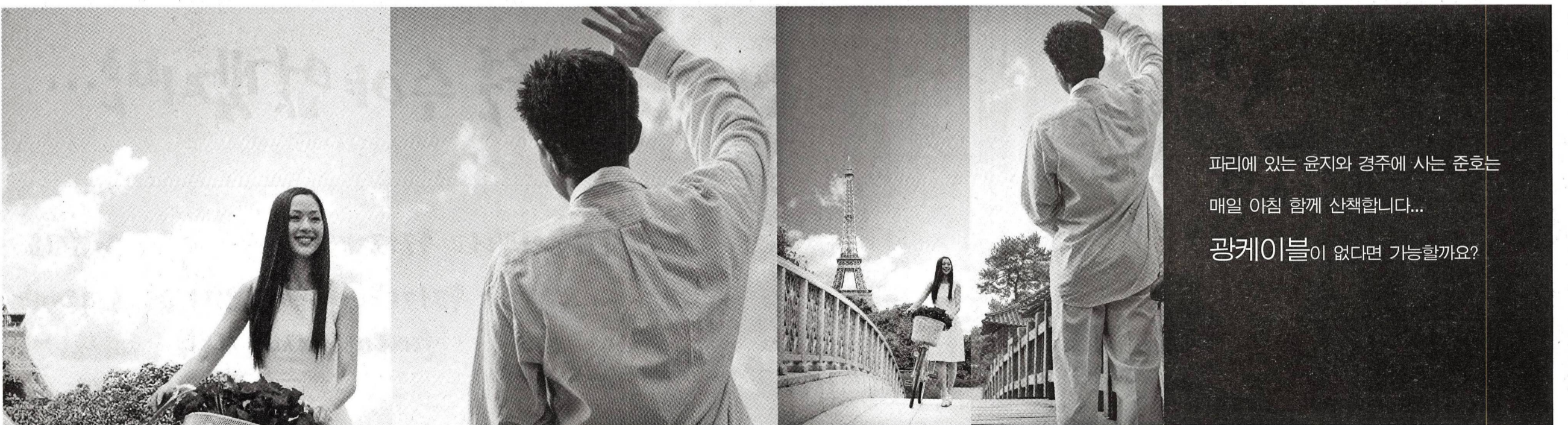
관음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력으로 살펴보신바 생명의 존재는 다섯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며 모두 "공"이라는 뜻이야.

그럼 "오온"이란 말은 무슨말일까?

저요~!

쌀,보리,콩,조,깨 아닐까요? 닭모이로 최고인데..

하하하... 오온이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가지인데 너무 어려우니 다음회에 설명하기로 하지.



빛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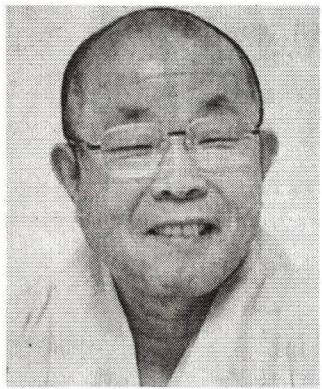
www.lgcable.co.kr

· 광섬유 · 광케이블 · 광소자 · 광부품 · 데이터 케이블 · 광네트워크

피리에 있는 윤지와 경주에 사는 준호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광케이블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스님

종정 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제11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종정에 원로회의 의장인 법전(法傳, 해인사 방장) 스님이 추대됐다.

지난 3월26일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속개된 종정추대회의에는 성수스님, 녹원스님 등 원로의원 15명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을 포함 총 18명이 참석했다. 법전스님은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2표를 획득했고, 회계사 조실 승산스님은 6표를 얻었다.

조계종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추대위원회에서

는 만장일치 합의추대를 전제로 투표 실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법전스님을 만장일치로 11대 종정에 추대한다"고 대변했다.

오늘 종정에 추대된 도림 법전(道林 法傳)스님은 세남 77세, 법납(法臘) 63세로 1939년(14세) 영광 불갑사에서 설재(雪齋)스님을 은사

(恩師)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1949년 상철·청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대표적인 선승(禪僧)이다.

도림 법전스님은 지난 85년부터 해인사에 주석, 96년에 가야산 해인사 해인총림 방장에 추대됐으며, 지난 2000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맡아 왔다.

제11대 종정스님의 추대식은 통합종단 40주년 기념행사와 초파일 임박한 점을 고려, 4월초순경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장인 법전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됨에 따라 공석이 된 원로회의장에 파계사 대비암 도원스님을 선출했고, 도원스님의 원로의원 선출로 공석이 된 부의장에는 대구 관음사 원명(圓明)스님이 선출됐다.

이날 원로회의에 추대된 도원스님은 "종단발전의 일익을 담당토록

조계종-선학원 화합 합의

관계정상화 6개항 합의문 서명

조계종과 (재)선학원은 지난 3월 6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를 확인하는 조계종-선학원 6개항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그동안 선학원은 1934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1962년 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하면서 인사권 재정권 별도 운영을 하여 왔었다. 조계종은 이러한 선학원의 처사에 분한신고등 승적관리는 물론이고, 행사교육원등 도제양성, 선원, 강원 의 입방을 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이번 6개항 합의로서 화

합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합의문 서명에 따라 선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부해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등 법인의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않고 교육 승적 및 수계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공권력에 유린당한 조계사 법당

제2의 법난규정 책임자 문책 촉구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계종 본산인 조계사에 경찰들이 피신하는 발진노조원들을 뒤쫓아 법당을 난입한 사건이 발생 불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중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조계사 중앙신도회 등 10개 관련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백주에 수백명의 경찰이 조계사를 진입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이는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10·27

장이 조계사를 방문하여 참회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을 전보조치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대학생불자연합회 등 일부단체들은 "총무원측이 경찰 투입 요청을 했다던 법당 난입을 자초한 것"이라며 경찰 투입과 관련, 총무원측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당 당시를 빼놓고는 처음 일어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신도들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 책임자 파면과 경찰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온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3월 21일 정대 총무원장은 교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종단의 안전과 조계사, 총무원이 분규현상으로 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백주에 수백명의 경찰이 조계사를 진입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이는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10·27

하겠다"며 "가까운 시일내 원로회의를 열어 미진한 부분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감사·봉사·회사 진각복지재단 인간4사운동 전개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장사)은 지난 3월12일 성북노인봉합복지관서 기념법회를 갖고 '인간4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인사, 감사, 봉사, 회사를 의미하는 인간 4사운동은 불교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취지로 진각종에서 중점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사회적 계몽운동이다.

점점 혼탁해져 가는 이 사회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성과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실천운동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의 생활화,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봉사와 회사의 생활화 실천운동이다.

진각복지재단은 '깨침이' 캐릭터를 만들어 스티커, 포스터, 저금통 등을 제작해 일반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불자들을 대상으로 1% 성금모으기 운동을 전개 복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갈레스님' 증광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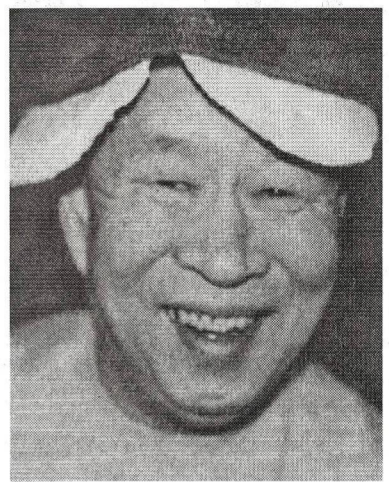
스님은 삶의 방식 자체가 거침없고, 자유분방했다. 1935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증광스님은 26세에 양산 통도사로 출가, 구하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원을 지낸 정도로 종단에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행적은 불도에 어긋나는 '과격'과 기행으로 절집에서1979년에 쫓겨났다.

그후 여러 기행과 예술적 삶은 세인의 관심을 끌었으며 80년대 초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 참석해

아 있는 구경꾼들이 종잡지 못하게 했다. 이런 글씨는 특출한 서예가들이 평생을 정진한 뒤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서체는 글씨를 갖 배운 어린이의 동자체(童子體)를 닮아 고졸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엇갈렸지만 국외에서 보는 눈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이 스님의 화문집 '미친 스님'을 펴내자 일본은 '큰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집을 출간했다. 그의 예



증광스님

자유분방한 삶 살았던 이 시대의 기인

'나는 갈레'라는 자작시를 남긴 뒤로 갈레스님이라 불리워졌다.

수년전 건강이 쇠한 뒤 강원도 백담사와 서울 구룡사 등지에 침거했으며, 2000년부터 경기도 곤지암에 토막집을 짓고 들어가 달마그림에 열중했다.

이때 그린 달마도 40점으로 2000년 10월 '괜히 왔다 갔다'는 주제로 '증광 달마전'을 열기도 했다. 결국 이것이 스님의 마지막 전시회가 되었다.

스님은 그림 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에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왼손, 오른손을 같이 사용하면서 정통필법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글씨를 쓰더라도 마지막 획부터 시작해 반대로 써 옆에 앉

술세계는 미국 PBS, CNN과 일본의 NHK 등의 방송전파를 타기도 했다.

조각가 최홍태씨는 길들여진 눈으로 볼 때 스님의 작품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바른 눈으로 보면 기쁨으로 전해오는 진실의 울림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의 티끌이 묻을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기쁨을 향해 감정이 들진한다는 것이다.

스님과 함께 '유치찬란'이라는 시화집을 냈던 시인 구상씨는 '휘갈겨 놓으니 달마의 뉘퐁수요, 느닷없이 만난 은총의 소나비'라며 그의 달마도에 감탄을 터뜨렸다. 시화집의 제목처럼 스님의 유치찬란함은 머리에서 밀고 가슴에서 가까웠다.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

부처님 오신날 봉축포어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봉축기획단은 불기 2546년 봉축포어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로 확정 대내외에 공식 발표했다.

월드컵과 함께 하게 될 이번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행사에 월드컵 성공 기원 내용을 담은 축원기도문, 기원등 달기, 축하공연, 거리연등설치, 외국인 참여방안등 다양한

고 축제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불교총지종도 예전과 다르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행사준비자인 김용주 교무는 "예전에 동대문행사에 참석하고 종로거리 행사준비로 이어지는 단순한 행사참여가 되어왔는데 이번 봉축 행사에서는 각 사원의 다양한 행사

를 이끌어 내고 통리원에서는 조계사상 부스행사에 중점을 두고 불교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준비계획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부산 경남교구는 부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제등행렬에는 부산 경남교구 모든 교도, 합창단, 종립학교 불교학생회가 참석하여 화합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불교총지종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형물과 상징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불교 총지종 자매결연 지정병원〉

하나한방병원

대체의학점목 협진

하나의원

-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환병
-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 가정의학과 1과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과 2과
- 치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한방물리요법실
- ◎임상병리실

- ◎스포츠의학실
- ◎방사선실
- ◎물리치료실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기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02)569-1011~4

FAX: (02)563-5577

교통편

- 버스A: 33, 212
- 버스B: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8번 출구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생하고 마음이 없으면 만물이 無다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우러난 장맛나는 帝釋寺

독배기보다는 장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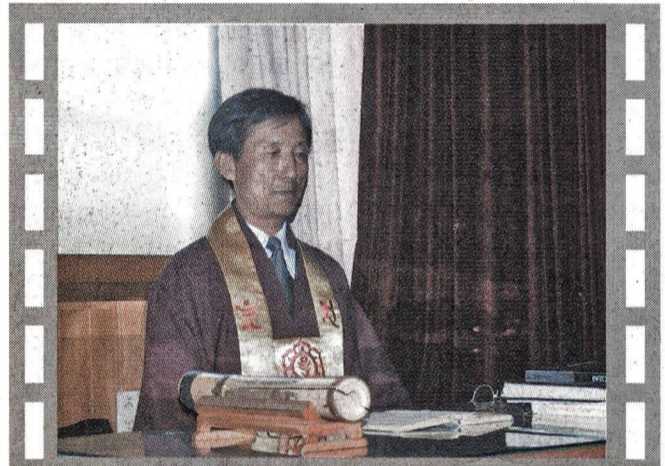
창밖으로 보이는 봄의 화려함이 잠시도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스한 햇살이 피어나는 한적한 들에는 벌써부터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 노력하는 농부의 모습은 마치 수행자의 모습과도 같다.

농사일에 잡시의 방식과 계엄은 병충해와 잡풀로 농사를 망치기에 농부는 정성을 기울여 한여름의 폭풍과 따가운 햇빛을 이기고 수확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닦는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장애와 마진이 생겨 퇴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수행자들도 정성스럽게 마음의 종자를 다스리는 진언행자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눈의 즐거움에 지루한 줄 모르고 어느새 대구에 도착하였다. 우승정사님이 터미널까지 손수 마중을 나오셨다.

언제나 수수하고 절립없는 스승님의 모습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와 한적한 시골의 집방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다. '독배기보다는 장맛'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제석사의 모습이 그렇다. 정사님, 전수님의 모습도 꼭 그런 모양이며 교도



들의 수행모습도 제석사와 스승님과 교도들이 한결같은 모습이다.

은은한 연꽃의 향은 천리를 가고

교도들의 자랑으로 정사, 전수님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제석사 교도수는 솔직히 많지 않으나 교도 한사람 한사람의 수행과 정진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다는 자랑으로 시작한다. '시시불공 처처불공'이란 총지종의 불공수행에 제석사 교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불공정진을 한다.

또한 너와 내가 없이 교도들의 화합의 모습은 어느 사원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화려하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가꾸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현 세태와는 다르게 진솔하고 은은한 교도들의 모습은 스승님과 하나되어 제석사의 진언행기를 널리 널리 펼쳐가고 있다. 사원과 교도 그리고 스승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마치 금강같이 단단하게 융명정진하는 곳이 제석사이다.

묘설계 전수님은 "앞에 나서지 않고 오 른손이 한일을 완수

도 모르게 불공을 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 어느곳에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퇴전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닦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제석사 교도들이다"며 자랑이 함축이다. 그리고 그런 교도들의 모습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전수님은 "모든일은 법계와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며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

어느날 별판에 큰불이 났다. 별판 가득한 나무며 풀이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불길에 삼켜버렸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새순이 돋고 향기나는 꽃들이 가득하고 별과 나비가 가득한 별판으로 변했다.

불에 타버린 검은 숲렁이는 간데 없고 생명력 가득한 땅으로 변해 활기차 있는 곳이 되었다. 들판에 낫모른 사람이 풀을 모아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풀을 한가득 퍼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전수님은 낫모른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보시의 환희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보시하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이 풍족하게 꿈에서 깨어났다. 제석사 발령받고 어떻게 교회의 일선에 서야할지 걱정이 한가득 했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은 가신 듯 했다.

며칠후 일사사 법계월 전수님의 소개로 이성부보살이 제석사에 왔다. 그리고 전수님은 깜짝 놀랐다. 얼마전 꿈속에서 보았던 꼴을 나뉘주던 그 보살이 이성부 보살과 어찌된 지렁이 같았는지... 다음날부터 이성부 보살은 포교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교도들을 입교시켰다. 마치 꿈속에서 꼴을 나뉘주던 보시의 결과처럼 제석사 교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며 부처님의 한량없는加持를 경험하였다

욕심을 내면 뭐하며,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어느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항상 주시하면 다음에 법계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해준다고 강조하신다.

인연은 인연을 낳고

기구하고 질긴 불법과의 인연이다. 종교의 울타리에 들어온지 어언 5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우승정사님은 1982년에 묘

설계전수님은 1983년에 본격적으로 총지종과 인연을 맺었다. 총지종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불가에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보낸 세월까지 합하면 훨씬 전이다. 그러나 총지종의 진언법이 무엇인지? "움마니반메홀" 육자진언의 묘의에 이끌려 인연을 맺었다.

출가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두번 다시는 대중을 교화하는 스승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맹세를 하였지만 불멸심 기로스승과 만보사 주교 법공정사와의 인연을 쉽게 끊지 않고 다시 진언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승정사와 묘설계전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는 下心의 마음,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수행정진하는 것이 업장소멸을 하여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거생에 무수하게 지어온 업장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해야할 수행과 마음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

고 했다.

"한 겹의 업장을 벗으면 한 등의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를 밝히는 방법은 下心의 마음, 참회의 마음, 감사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며 마음의 등불로 삼고있다"고 하며 우승정사는 강조에 강조를 한다.

치열한 자기와의 전쟁을 겪은 정사 전수님

제석사는 1980년 복혜사원당(당시 주교 정정심전수)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몇 차례의 증축과 주위대지 매입으로 현재의 정갈한 사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승정사님은 젊은시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자기 고민과 번뇌로 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나를 문득문득 괴롭히는 이놈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은 마침내 스승님을 세속을 벗어나 수행의 길을 걷게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출가수행자의 삶을 파계하고 다시 속세의 길을 걷는 치열한 자기고민과 번뇌의 삶은 스승님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전수님도 스승님과 고난의 길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속세의 어려움... 막노동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그 고난한 흔적이 스승님의 마음 마디마디에 담겨져 있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의화된

다고 하지 않았던 스승님과 고난의 길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속세의 어려움... 막노동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그 고난한 흔적이 스승님의 마음 마디마디에 담겨져 있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의화된다고 하지 않았던 스승님과 고난의 길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속세의 어려움... 막노동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그 고난한 흔적이 스승님의 마음 마디마디에 담겨져 있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의화된다고 하지 않았던 스승님과 고난의 길을 같이 하였다.

가! 웃음지는 골깊은 주름살에는 삶의 번민과 고뇌가 있으며 굵은 손마디 손마디 투박한 모습은 삶에 진지한 모습을 안고 증생과 같이 하려는 선사들의 치열한 모습을 보는듯하였다. "수행한답시고, 마음공부 한답시고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고, 나이만 한 살 한 살 먹고 육성(見性)은 늙으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헛살았다는 생각이든다"는 우승 정사님의 한탄에 묘설계 전수님은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으며 지긋이 바라보는 눈길에 문수보살의 눈길처럼 한없이 자애로웠다. 미처 증생이 부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종단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이셨다. 특히 정사님이 관심을 가져왔던 氣의 흐름과 수행하는데 자제(몸가짐)의 중요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다. 스승님의 지론은 편안한 자제에서 편안한 마음이 나오고 편안함이 지속되어 지면 마음의 편안함으로 이어져 마음을 다스



릴 수 있다한다. 그리고 자제(몸가짐)의 중요성과 高低長短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셨다. 또한 종헌 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손질하는데 종단의 성패가 있다고 하시며 종단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정사님은 젊은이에게 一聲 하신다. "젊은시절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신세계에 대한 고민과 공부, 마음에 대한 공부, 자성불을 찾는 데 대한 고민과 공부를 일찍 시작하라" "단순히 이곳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닦는 수행의 공간, 마음을 수련하는 도장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수행할 것과 증생교화를 위한 길을 가라하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곳이 수행처요, 지금 너가 있는 곳이 증생교화의 넓은 우주임을 잊지말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석사에서 스승님과 같이하면서 마음한곳을 가득 채운 무엇인지 모를 희열감과 저전함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 뒤엉켰다. 그리고 제석사는 아니 스승님은 자신에 대한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더욱 고맙고 감사하였다.

스승님의 지론인 下心과 감사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참회의 마음을 가슴한가득 담고 돌아왔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궁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3452-7485 FAX 3452-7486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7주)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